朝鮮日報
發行所 서울市太平路一街 朝鮮日報社
月定購讀料 壹百圓

美蘇共委

廿三日磨勘時間까지 提出總數五百三十件

個別的協議會로 組織될듯

政黨社會團體의 參加請願書接受磨勘日인 二十三日의 美蘇共同委員會는 本分科會議를 또다休會하고 二十五日의 各政黨 社會團體와의 初度會議에關한 節次問題와 請願書에關한 審議等을 非公式的으로 討議한듯하였는데 仄聞한바에依하면 二十五日의 口頭會議를 거쳐 來七月五日의 正式會合이있기前에 各政黨 社會團體로부터 提出된 諸問에 對한意見書를爲先審議한後에다시個個의政黨團體를招請하야理想的政府樹立案을協議할協議會를組織할模樣이며 이協議會는 每日平均六個政黨團體를招請하야 具體的인 共同協議를 할것으로 보인다 二十三日午後五時二十分現在請願書를 提出한 數爻가 五百十八件이다 아즉도 提出順序를 기다리고있는 團體가 있음으로 結局五百三十件假量될듯하다 그리고 北朝鮮政黨團體의 提出數는 三十五六件에 達하고 있다 한다

共委參加團體 代表氏名一覽

美蘇共委參加의 各政黨 社會團體代表者決定은다음과같다

△新聞記者會 徐康百(서울신문)△民衆同盟元世勳△寫眞同盟金珍洙△基督敎民同金昌俊△交運勞組曺猛圭△勤勞大衆黨姜舜△金屬勞組玄勳△化學勞組朱炳輔△鐵道勞組許成澤△海員勞組朴秉一△朝鮮人民援護會洪南杓△在日朝鮮人聯盟金正洪△學兵同盟羅承表△民族社會黨柳沺△天道敎總本部金光浩△靑友黨李應辰△天道敎婦人會金貞龍△農民社林文虎△朝鮮科學女性會許河伯△勤勞人民黨呂運亨△韓民黨張德秀△朝鮮民主黨■晩植

그리고 傳하는바에 依하면 北朝鮮에서는다음과같이 代表를 決定하였다한다

▲北朝鮮勞動黨=金日成▲北朝鮮民主黨=李廷雨▲天道敎靑友黨=金達鉉▲農民同盟=姜鎭乾▲民靑女性同盟=朴貞愛▲基督敎聯盟=朴전순▲佛敎總務院=金세연▲音樂同盟=李은탁▲演劇同盟=羅雄▲文學同盟及記者同盟=韓雪野

共委全評代表中止

全評에서는 二十一日常任委員會를 開催하고 共委協議參加에 對하여 愼重히 檢討한 結果 全評으로는 代表派遣을 中止하고 傘下單一勞組로써 參加하기로하여 一部代表中變更을 하였다 한다

마長官對歐援助案 蘇側受諾?

【런던二十三日發UP朝通】當地 外交界에서는 「마-샬」美國務長官의 歐洲援助案을 利用할方法을 講究하려는 三大國會議에 參加하라는 英佛兩國의 招請에對하여 蘇聯은 條件附로 이를受諾하리라고 觀測하고있다 美國外務省代辯人은 英佛兩國의招請에對하여「모스크바」로부터 尙今回答이없으나 今明日中何等의 回答이 있을것으로 期待된다고 말하였다 英佛招請은 今週中會議를 開催하자고 提議하였는데 英外務省側에서는 二十三日까지 蘇聯이 回答하도록 要求하였다는것을否定하였다 蘇聯政策通에서는 蘇聯이歐洲再建案을UN과共同으로作成하고美國의援助資金提供條件이 受諾可能한것이면「마-샬」提案에參與하는데 同意하리라고 보고있다 以上과같은觀測은 다음과같은諸事情에 立脚한것이다

一、正確한 報道로有名한 日曜新聞「오브서-버」紙의 報道에依하면「스타린」元帥는 前駐美蘇聯大使「이반 마이스키」氏와 協議中이라하는데「마이스키」氏는 西方諸國과의 協力主張者로 알려지고있다

二、蘇聯은 戰禍에서復興하는데 經濟的援助를 切實히必要로한다

三、蘇聯의 衛星國인波蘭「체코스로바키아」「유-고스라비아」는 蘇聯에對하여 美國案受諾을 懇請하고있다

四、蘇聯의「마-샬」案에對한 唯一한公式言及으로「타스」通信은二十日夜의 報道에서英佛側招請受理를 確認하고蘇聯이 이를受諾하는問題는 政府에依하여 考慮中이라고意味深長히 말하였으며 即時로以上招請을拒絶하지는않았다

徐選手等歡迎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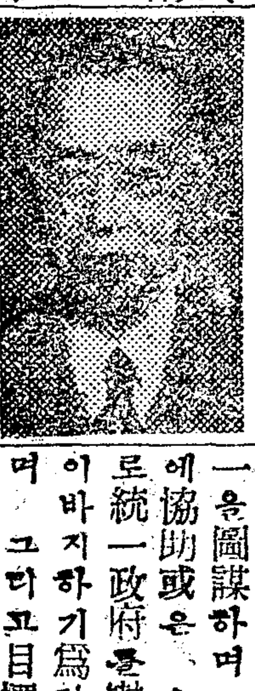
廿三日過政廣場에서 盛大擧行

「보스톤」世界마라손大會에서世界新記錄으로 堂堂優勝하여비록나라없는弱少民族이나衝天의意氣를 世界에誇示한徐潤福 孫基禎 南昇龍三選手의凱旋歡迎會는南朝鮮過渡政府 朝鮮體育會朝鮮陸上競技聯盟共同主催로仁川으로부터三選手를마지하여二十三日午前十一時부터過渡政府大廣場에서三千萬의熱狂的인興奮과感激속에擧行되었다 太極旗를中心으로美 蘇 英 中聯合國의大國旗를 玄關正面에두르마보면서「하-취」中將「헬믹軍政長官代理」金奎植 呂運亨 安在鴻民政長官等諸氏를비롯하여 政界軍政要人 體育界外에各界代表 學生 一般群衆數萬名이參集하여式은 鄭一亨人事行政處長司會로開會되었다 式臺正面에옷깃을가다듬고앉은徐 孫 南三選手의가슴에는 太極旗「마-크」가燦然히 빛나고 特히徐選手머리와가슴에 번쩍이는月桂冠과優勝金「메달」이榮譽의勳功을 나타내는中에 首都警察廳管絃樂團의우렁찬奏樂 開會辭 國歌 美國國歌奉唱에이어서李哲源公報部長으로부터 三選手의紹介의말이 있은後「하-지」中將「헬믹」代將 安民政長官 朝鮮體育會會長呂運亨 朝鮮陸上競技聯盟會長鄭桓範諸氏의順序로 三選手의勝利를讚揚하는祝辭가 있었다 이에呼應하야孫 南、徐三選手의答辭에뒤이어서梨花女中合唱團이「凱旋의노래」를 齊唱하여場內의感激이極度로 高潮될때 梨花女中生과女學童이三選手에게花束을進呈한後 兪億兼文敎部長의發聲인萬歲三唱으로써 解放朝鮮의歷史에 一大劃線을긋고午後一時 感奮의民族祭典을 끝냇다

【寫眞은하-지中將과 徐、南兩選手의 握手下는歡迎會場】

合委、共協、時策關係

金奎植博士와 時局問答



美蘇共委再開以來 金奎植博士를中心으로한合作委員會의擴大强化와더부러中間路線政黨社會團體를網羅하여 共委對策協議會又는「時局對策協議會」等을새로構成하여 共委에對處하고있어政界의注視와一般의關心을끌고있는이때 金博士는二十三日往訪한記者와當面諸問題에關하여다음과같은問答이있었다(寫眞은金博士)

【問】「合委」와「時局對策協議會」와「共協」의各自의意圖와性格의差異는如何

【答】「合委」는七原則에依해서可及的으로左右合作에努力하여 南北統一을圖謀하며 美蘇共委에協助或은 우리自力으로統一政府를樹立하는데 이바지하기爲한聯合體이며 그리고目標인故로其他의課業은附帶的인을다시言明한다 그럼으로언제든지 臨政이樹立되면「合委」의 使命은達하였다고도 할수있다 그러치만 或臨政이樹立된後에도 本「合委」로서 必要한일이있다면 繼續하여 協助에努力할른지도몰으겠다「時局對策協議會」는 共委에對하야 諸問書應答도있고 其外如何한 方法으로든지協議의工作을 하기爲하야 左右를 勿論하고그理念과行動이 可及的統一되여가지고 나가는것이必要하다고보아 于先非公式座談會로 하였는데臨時的으로라도 共委에對하여또는 時局問題에關한對策을 講究하야共通히할方法으로 臨時聯合機構까지라도 發起하여볼까하는것인데 或具體的結合體는 없을는지도 몰으겠다 그럼으로이것은卽名實相符한 非公式座談會뿐이다「共協」은 特히直接으로 共委와出面協同하려는것이고「時局對策會」는 우리끼리의 對策을講究하여가지고 或共委와接洽하는것은各政黨이나 團體나聯合體에委任하게되기가쉽다고본다

【問】「合委」委員을擴充하였는데 左右側人物이包含되지않은理由는?

【答】所謂極左極右方面에對하여서도 適當한方法으로우리의 意思와加擠을歡迎한다는表示까지하였지만 이에對한反應이도모지없었다

【問】「共協」代表로共委協議對象에 參加한다는것은事實인가?

【答】「共協」이協議對象으로認定될른지 몰으나招請된다면 發言代表로參加하겠다

【問】中間路線을 左側에서는 右라고右側에서는左라고 規定하는模樣인데見解如何

【答】제각금色眼鏡을쓰고보는것이니 말할수없으며 遠視鏡으로본다면 그러치는않을것이다 極右極左에서 自己와行動을가치아니하면 그러케 말하는것이다 그러나「合委」의構成體에있어 右翼은右라고보고 左翼은左라고보며 中間은亦是中間으로본다

【問】一部政界에서는左右外에는 中間路線이란 있을수없다고말하는데

【答】그것은理論問題이고 理論에가서는 限定이없다고생각한다

國府滿洲에 援兵急派

【南京二十二日發UP朝鮮】國民政府系報遣에依하면 國府軍은滿洲長春南方의要衝 四平街를救出하기爲하여 長春及奉天으로부터 救援部隊를 急派하고있으며 長春으로부터 南下하는部隊는 이마四平街北方三十三哩의 劉房子에 到達하였다한다 한편國府國防部代辯人은 强力한國府軍增援部隊가 滿洲에急派되고있다고 言明하였는데 奉天來電에依하면國部軍新銳部隊가 列車로 每日營口를出發 奉天으로向하고있다한다 前線報道에依하면 國府軍은 長春南方三十五哩의 公主嶺을 挾擊中이며奉天으로부터北上한部隊는奉天北方六十三哩의 開原을通過하고 同市北方山嶽地帶에서 中共軍과戰鬪中이라한다 한편 滿洲國府軍副司令官 孫利人將軍은 當地에서 蔣主席及 其他國府軍首腦部와 滿洲情勢에關하여 協議한後二十一日滿洲로 歸任하였다 蔣主主席은 孫將軍과 二十日午前會談하고 그에게滿洲作戰에關한 新訓令을주었다

UN極東經濟委員會

來週中業務終了豫定

【上海二十二日發AP合同】當地에서 開催中인 UN亞細亞及極東經濟委員會는 今後三、四日밖에는 討議期限이 남지않었다 所要時間의大部分을 이미 節次 問題討議에消費한 同委員會는 앞으로 唯一한討議事項 即 同委員會가 上海에서 開催하게된所以의重要問題가남어있다한편英側提案即U·N經濟社會理事會에만 提出하기爲한資材收集案의 審議擴張을圖謀하고있는 分科委員會에서는 廿三日本會議에 提出하기爲하야 目下討議를 거듭하고있는데 何如間今般委員會는來週內에 業務를終了시킬 計劃인模樣이다

人事消息

△尹戴嬉氏(大衆黨宣傳部長) 人事次來社

뉴스타- 위스키 NEW STAR WHISKY

醫學博士 李溶昇 著
結婚과 性問題
第三版!
四六豪華版 124頁 값120圓
서울…有吉 一成 東和百貨店 漢陽書籍 博文
大田…錦城堂
釜山…敎學書舘
發賣開始!
靑春의歡喜는健全에서!
健全한性生活은人間進化의偉大한志向이다! 재生을明日을爲하여이한卷을机上에裝飾하라!
解放後讀書界의驚異篇!

百日咳 水虫 特効藥
서울市義州路一街一九一(派出所前) 大天藥局

보라!
將次世界市場에進出할 호-프蓄針 호-프紡績針
★地方代理店大募集
蓄針 紙函 HOPE
★本品은플레비아蓄針專門製造하든技術者가入社하야特殊한호-프蓄針을製作하오니愛護하심을伏望함
製造元 서울市中區忠武路4街48 朝鮮工業株式會社創立事務所 代表李培植

文敎部次長 吳天錫 先生序 李相鮮 先生著
社會生活科의理論과實際
값100圓 送料10圓
發行處 金龍圖書株式會社 서울鍾路2街91 振替口座京城18108 電話光化門③1099·2566
社會關係各科目을 兒童의生活에接近시키고 被敎育者의心理에呼吸을마추게하기爲하여 文敎部에서 在來分散各立하였던科目을合하여 社會生活科로綜合敎授케되었읍니다
本社는 社會生活科 敎師의어진 指針이되게하기爲하여 李相鮮先生著 社會生活科의理論과實際를 發刊하여 發賣하였든바 絶讚을받아 四版을發行하여發賣中입니다

販賣員 數名採用
皮革商、雜貨商、官公署、會社方面에販賣經驗者、履歷書持參할것
五福化學工業所
서울市中區苧洞(永樂町)一街九一 電話本局②七〇九番

東洋工業中學 生徒募集(晝夜間)
一、土木科、機械科各五〇名 上級補缺若干名
一、出願期日 自六月二十五日至七月二十一日
詳細事項本校來問(鷺梁津終點下車)
서울市永登浦區本洞(電④二八八九番)

東洋工科專門學院 學生募集(夜間)
一、土木學科、建築學科、機械學科各一〇〇名
一、資格試驗出願期日 七月十二日까지
一、入學試驗出願期日 七月十九日까지
一、詳細事項本校來問(鷺梁津終點下車)
서울市永登浦區本洞(電④二八八九番)

國民大學舘 學生募集
一、募集學科及人員(夜間大學)
學部(政經學科 法律學科) 第一學年 七五名以內
專門部轉編入生 政經科 法律科 第二學年 第三學年 若干名
一、資格試驗(應募期限 七月七日까지 試驗期日 七月十一日、十二日)
一、入學試驗(應募期限 七月十七日까지 試驗期日 七月十八、十九、廿日)
◇詳細來問 서울市鍾路區內需洞一四五 電光四一六三

신입생 모집
단기4280년도 제1학년생도를 아래와같이모집함
보성공립초급중학교 (寶城)
(가) 모집인원 남자약80명 여자약50명
(나) 출원기일 6월15일부터 6월28일까지
(다) 고사기일 7월 3일부터 7월 5일까지
(라) 고사장소 본교신교사
기타상세는본교에물어주시요 (전남보성)

映畫配給協會創立謹告
現情勢에鑑하야 우리民族은加何한職場과加何한部門을不問하고 建國途上에臨하야平素보다加一層各自反省과 讓步的相互協力없이는建國土臺에完全을期할수없으니만를 今般同業各映畫社의一致團結로本協會를 創立하야우리民族의現時局에適切한文化普及宣傳에 責任感을成果的實顯에努力코자하오니 斯界地方同業諸位는勿論하고江湖諸位는賢明指導와 鞭撻을仰願하는바입니다
西紀一九四七年六月 日
서울市中區乙支路三街三四九
映畫配給協會
電話本局②三八五七番
理事長 崔完奎
副理事長 崔證得
同 金振厚
理事 宋一烈
同 金永淳
同 申洪植
監事 李淳衡

不滅民族意氣의顯現

三選手凱旋의날

三千萬歡呼裡·仁川港에感激의上陸

체육의성지 미국「뽀스톤」에서 만국민 아니 전인류의기대와 주시를받으며 엄숙하게열리어진 제五十一회국제「마라손」대회에서 이나라역사가있은후 처음으로 국가와민족을 정식대표하야 출장한 손기정(孫基禎) 남승용(南昇龍) 서윤복(徐潤福) 三선수가 八개국 一백五十六명의 세계강호(强豪)들을 역사적인기록으로 당당히물리치고 승리의월계관을 획득하야 온세상사람들의 앗김없는 박수환호갈채를받고 더욱히이나라의 란마같이 혼란해진 국내정세에대한 모색(模索)과실망으로 인간으로서의식조차 혼미해저가려는 이민족에게다시금 피를끌케하고 살을떨게한 세계마라손의대왕이요 이땅의국보(國寶)이며 이민족의꽃인 三선수가二十二일오후네시 三천만의열광적 환영리에 수도관문인 인천(仁川)항에 길다란여정에서 피로한빛도없이원기왕성하게 개선(凱旋)의 첫거름을내려드디었다

「익이고돌아왔오!」

權、金兩先輩끌어안고劇的報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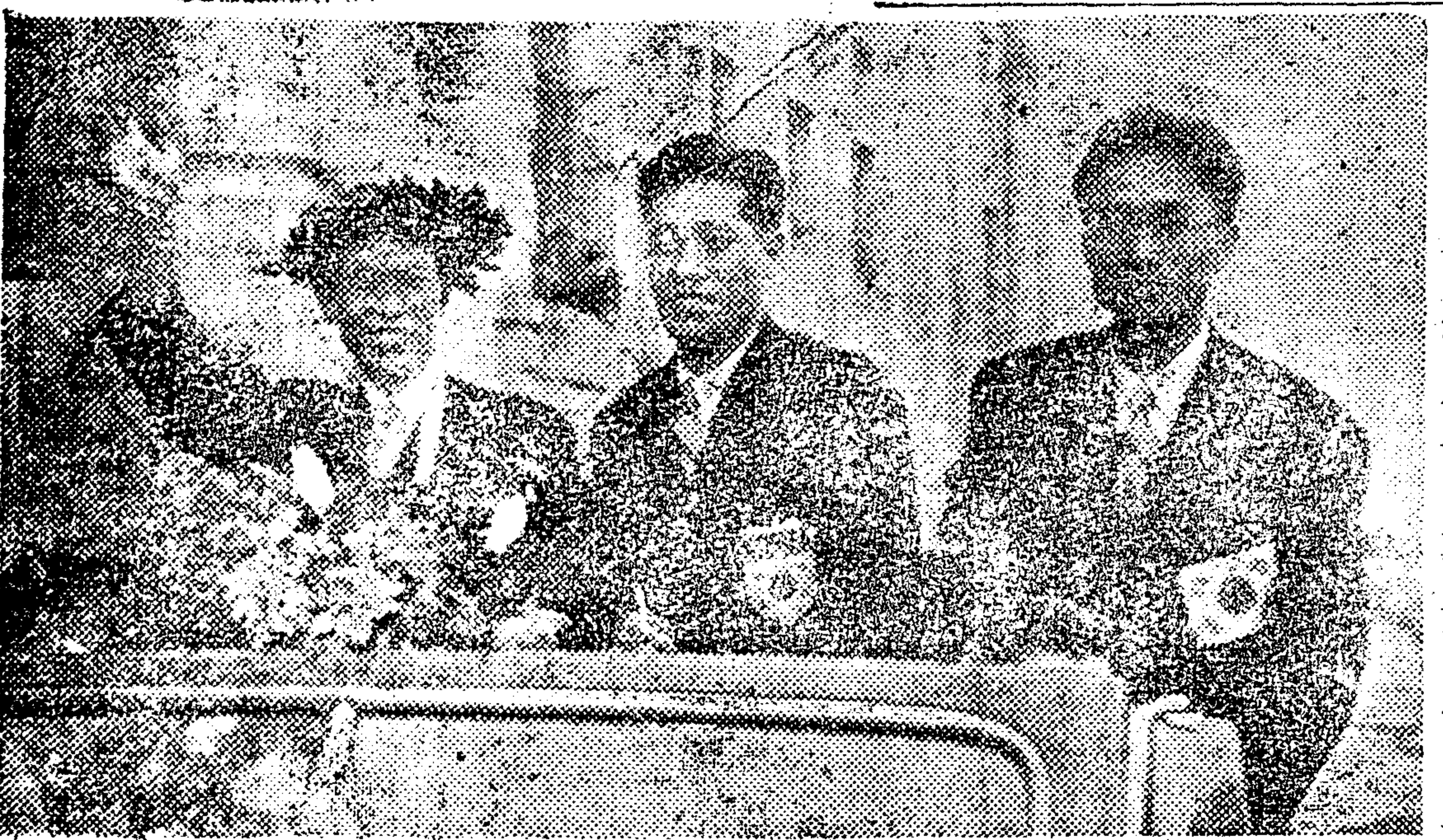
【仁川에서 朴虎林 李東洙特派員發】

三선수의 개선을맞기위하여 분초를다투며 초조히기다리는 三천만의 포옹속에 어서속히보내주렴이였든지 세선수를 태운미국배「제너랄·와이글」호는 一만八천톤이나되는 무거운몸으로 있는힘을내여 시속二十「노스트」의 쾌속력으로 달리어예정보담은 하로일르게 二十一일오후 다섯시경에 인천항외약 四十五마일지점에 도착하였었다 그러나 조선을처녀방문인 이배가 항로를잘못들어 배굽이땅에닷게됨으로 그만그가디에 정박하였기때문에 二十二일오후에야 입항하게되였는데 이날아침 여덟시三十분 문교부장유

억겸(兪億兼)씨 조선육상경기연맹회장 정항범(鄭恒範)박사 제一관구청장 박명제(朴明濟)씨는 인천경찰서경비선으로 세선수가탄「제너랄와이글」호를 차저나갔다 베시간만에야 나타난 이배를향하여 출영자일동의 시선이쏠리고 이여서 모자들을 비서흔들때에는 三선수는「기어코 이기고왔습니다 웨 이렇게늦게 마저주십니까」하는듯이 담박데기에서 뛰여나리려는 자세로 태극기를 휘들리고 있었다 배에오른 일동과 三선수사이에는 감격에떠는 손과손이 벼갈어붓잡이였다 외국사람들만이 웅성거리는이배에 쌍동이처럼딱같은 곤색저고리회석바지로 옷을체딘새선수중에서도 가장어디고 적은서선수의 가슴에는 이번대회에서의 승리를 축복하는명예의 금「메달」이해빛에 반영되어 더욱찬란하게빛난다 이윽고배는떠났다 오후세시에 인천항에들어오자 인천부윤 표양문(表良文)씨외인천체육회 기타각단체 대표들이 증기보ー드두대르 마주나왔었는데 그속에는세선수의 선배요지도자인권

대하(權泰夏) 김은배(金恩培) 양씨가 모다 눈물이 글성글성한 눈으로 선수들의 모습을 차즈며 배에오르자 손선수는、손살같이 달려와 권대하씨의목을 껴안고 「우리는이기고야말었다 누가다시우리를비난할사람이있으랴」하며 굵다란눈물줄기가「테ー기」를적실때 남모를고심과 노력끝에 오날의빛난결과를 어든그선배와 그후배의감격과흥분에열킨눈물의포호(抱擁)으로 국적장면을이룬고순간 둘러선일동의가슴에는 단없는 감동과알수없는 그무엇을가슴속깊이

인처주었다 오후네시월계관을쓴서선수를중심으로세선수는 아침부터 모혀든각사회단체학교 생도일반시민들의 바다물도뛰집힐듯이환호하는만세소리와박수를받으며 제一잔교(棧橋)에서나린다 세선수는 기자단파자진반의쉴새없는 프랫쉬속에서 인천체육회에서 드디는 꽃다발을받고 세선수를대표하야 손선수가 감격한어조로 인사말을한다음 곳지가행진이시작되었는데 연로에 운집한시민들의 박수와 환호는 끝일줄을몰랐다



寫眞說明=上은 仁川海上에서下船光景 下는 凱旋한三選手(本社特派員 李燦衍 蔡調秉 撮影)

凱旋에의感激譜

體育會副委員長 兪億兼氏談

좋은 스포ー쓰계의三기드자들 얻은것을 기뻐합니다 三선수중 발시에는 쓸쓸하게 떠나보내였는데 이처럼승리를하고 도라오니 나의얼굴이 뜨거워짐을 금할수없읍니다

南選手夫人談 오족感謝할뿐

주인이「뽀스톤」에출발한후 四남매의아이들을다리고 집을직히고있던남선수의부인은 이날 인천항까지 출영을나왔었는데 소감을다음과같이말한다

기쁜말슴 무어라말슴드릴수없읍니다 여러분들의 이와같은 대환영에는 자연이머리가 숙으려집니다 오직감사할따름입니다

快走를極讚揚

徐選手에感謝 孫選手夫人談

이날부두에는 손선수의부인이 장녀문영(文榮)(七)이를다리고 출영을나왔는데 개선의기쁨을 다음과같이말한다。

오날의 기쁨은 오직서선수의 노력의결정으로아옵고 치하하야마지않습니다 이번서선수의 성공으로인하여 십一년전백림(伯林)대회에서 우승한 주인의업적도더욱빛나게된것으로 생각됩니다

先輩에感謝 徐世福氏談

「뽀스톤」마라손왕 서윤복선수의 단한분형님 세복(世福)씨는 감개무량한 어조로다음과같이 말한다

모두가 여러분의후원해주신덕택입니다 그애의승리뒤에는 손·남양선배의 간곡하신지도가 있다는것을 잊어서는안될것입니다

三選手歡迎 仁川서廿二日擧行

「뽀스톤」마라손대회에서 혁혁한공훈을세우고 개선하는우리마라손三선수를 환영하고저인천(仁川)卅만시민은오전여덜시부터 학수고대하든중 오후네시반三선수가부두에 역사적상륙을하자 시민의열광적환호를받으며 인중(仁中)교정에서 인천시와인천체육회 공동주최의「서윤복선수일행개선축하대회」에 참석하였고 오후여섯시에는 인천시유지 백五십명이 참집한동환영회에 참석하였으며 이날밤은 표인천부윤관사에서 여장을풀었다

徐選手에純情의戀文

제임스·H메리로부터

「뽀스톤」마라손의패자 우리서윤복(徐潤福)선수가 미국에체재중각계각층의「팬」들로부터 수많은 치하의편지를 받었는데 기자는 그중한녀자로부터의 연문을 수중에넣었음으로 이를독자제씨에게 공개한다。

「용맹스러운「미스터」서에게 삼가이 글을드리나이다 인사도없는저로서 이와같이글월을 드리는것을 용서하시요 저의출생지는 본국「오꾸라하마」이며 당년스무살입니다。그리고「뽀스톤」대학에서 심리학(心理學)을 전공하고 있읍니다。나의얼굴은 긴편이며 눈은 푸르고 머리는노랐읍니다(中略) 이번마라손대회에서 그대의초인간적 쾌주에대하여 무한의 공경과 치하를 드리나이다(中略) 나는그대와 이야기할 기회를갖이고 싶으며 만약그대가 허락하신다면 함께 영화구경을 가기를 원합니다(中略) 그대가 이글을직접읽으시지 못할줄은아오나 대신읽오실분이 충분히내용을전해 주실줄밑습니다。 그러면 그분과함께 저의집을방문하여주셨으면 다시없는영광으로 아옵고 모ー든곳을 안내해드리겠읍니다。

一九四七年四月二十五日

제임스·H·메리

徐選手는어느校學生?

異彩의歡迎景

二십二일 인천에상륙개선한 서윤복선수를맞이하는 수만관중가운데 「우리대학대표환영」이란 같은뜻의기배를단 한양공대(漢陽工大)와 고려대학(高大)두대학의 환영자동차가 특히눈에띄였다。 서선수는 지난三월에한양공대로부터 고려대학에전학을 수속하고서울인천간왕복역전경주대회에도 고려대학대표선수로 출전한일이 있었는데 입학수속이 완전히 끝나지못한채 지난四월초순에 미국「뽀스톤」마라손대회에 간것이다 그후 한양공대에서는아직우리대학에교적(校籍)이있다고하여 서선수가개선하는날 두학교에서로 「우리학교의선수환영」이란기빨을 내걸고 환영한것은 거리의이채로운풍경이있다

와이글號에서 三選手會見談

【「와이글」號上에서 本社特派員朴、李兩記者發】

二十二일 열두시三十분 기자는 인천항의四十五마일의해상에 머물러있는「와이글」호로 자저 체육사상에 영원히 빛날 우리 三선수개선의 첫승회를 물었다 승리자의우월감도 제파자의 위엄도 털끝만한자만심도없는 오직겸허하고모우화해보이는 세선수는 기자의묻는말에 서로공을미루며 아매와같은문답을하였다

記者 열마나고단하오 이번우승은 우리민족의 우승이요 오직감사할뿐입니다 우선감상으로부터말씀해주십시요

徐 四월三일 금포(金浦)비행장을 우리一행이떠날때는 사형장에끌리어가는 죄수처럼 무거운 책임을느겼읍니다 혼란하고 빈한하고 인정이살쌀해진 조국을 뒤로할때 나는두선배와 끌어안고 동경(東京)까지향하는동안 곡복겨올었읍니다 그러나공적서부터 나는 다시군세결심을했읍니다 十一년전 손남두선배가 백림(伯林)올림픽에서 승리의 회관을획득하면서도 민족과국가를대표하지못하든 그불우한조선의체육을 우리의것으로 찾기위하야 평소에품었든 결심을 다시군게했든것임니다

孫 나의경기는 개인의입장이였으나 서군의 입장은 우리나라의것 민족의것이 잇기때문에 제三자가 얼마나앗기고 빌엇겠읍니까 나는 이번의승리를 일분이알고있는가를 알고싶었읍니다 이제야말로 조선사람의 실력으로 우승했다는것을 알게된것임으로 그것이 제일통쾌합니다

南 후진을위해서 출장은했으나 만족한성적을 내지못해 도로혀붓그럽습니다 백림올림픽에서 우승한날밤 나는손형과같이 호텔에서등며통곡하든 그쓰라린기억을 서군이 씨처준것을 무한이기뻐합니다

孫 모한가지는 三八이북의 우리집에서 그리고 체육동지들이 이사실을 아는지 몰으는지 알고싶습니다

南 빈한한 내나라가 세계에서 제一종고 제一사랑스러워요

民族의일홈걸어勝利

記錄필림代없서눈물의呼訴

돈을모르는政治를해주시요

記 미국인들의 조선에대한인상은어떠합니까

孫 미국민들은 첫째 운동 둘째영화 셋째정치라고하여 모도가 운동에대한관심과정열이 상상이외였읍니다 이번경기때에「뽀스톤」경기코ー스연선에만 三十만이란관중이 몰렸는데 그중에는 조고만어린이들까지도 선수들의「넘버ー」를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조선도 체육에대한인식을높여야 하겠읍니다 더욱이 해외인사들의운동에대한인식은 너무나빈약한데 해서는 一一히 실례를들수없지만 말이안나올지경이였읍니다

記 만스홀같은데도물론가보셨겠지요

徐 (웃으면서) 아니요 위낙춤은 출줄도모르거니와 그럴시간도없었읍니다 우리들은 일반의상상외로 엄격한생활을 해왔읍니다

記 국내여성「팬」도 상당할텐데요

徐 글세요 아직은몰르지요

記 결혼은 언제나하시렵니까

徐 돈「올림픽」이 끝난후라야하겠읍니다 나는앞으로의 책임이더 중하니까요

記 미국대학에서장학생으로 초청했는데 어떻게하실작정입니까

徐 나는 좀더 조선에서배우고 내후배를 기든후에라야 대도를결정하게되겠읍니다

記 여비로곤란은없었읍니까

孫 동경에서는 미국돈만가지고있었기때문에 식사도 충분이못했읍니다 「산푸란시스코」에서는 비행편을 기다리느라고 비행장식당에서 제一싼것으로 점심을먹으려니까 조선서간 二세청년이 우리를알어보고 국제대회에 나갈 선수들이 이점심을먹고있다니 이런쓴일이어디있느냐고 하면서 눈물을씨스며 자기가갓고있든 여비에서 二十「딸라」를줄때에는 눈물이쏘다젓읍니다 때승리한후에는 우리를기록「필림」이 되여있는데 二백五十딸라가있어야 이것을찻겠음으로 뉴욕에서 임영신(任永信)여사와함께 별별애를다쓰다가 내중에는「하와이」에서온 어면귀부인이 기부합즉하다고하기에 없는돈으로 저녁을대접하며 가청하라했드니 그만 별달을대고 안오고말었읍니다 그뒤「로스안젤쓰」에있는 어면귀부인을맞나 눈물의호소를했드니 二천딸라도 내겠다고하며 필요한금액을 기부했기때문에 아마근는 군정청에「필림」이오게 된것입니다 그리고미국에가신 동포들중에서도 농사짓고 로동하는이들이 눈물을흘리며 十원五원모아주는데 머리가숙으러졌읍니다 앞으로조선의정치는 우、[illegible]의정치가아니라 눈물의정치 돈을자랑하지않고 사람을자랑하는 정치라야될것이다하는것을 절실히늦겼읍니다

여기까지 말했을대 별서배는 인천에닷고말었다

自律的獨立絶叫

어제正午에反託데모

반탁진영의모청년단체등다수군중은 卄三일정오를기하여 종로네거리로부터 세종로(世宗路)의 공위회장인대한문(大漢門)앞에 집결하여 반탁시위를하였는데 경찰에서는 긴급동원하여 군중을해산시키는편 MP는덕수궁을호위하는등 삼엄한경계이었는데 一(零)시四十분경에는 一단해산의기색이보이였으나 동一시부터다시각처에서 모여들기시작하여 二시현재덕수궁앞에는 수많은군중이 집결되었을때 마침점심시간이되어 퇴출하려든 공위제二분과위원회미측대표「웨크링」대장(代將)은 군중시위에대한감상을 묻는기자에게 엄연한태도로「우리는 원측을 변경할수는없다」는 간단한답변으로 차를달려나갓고 제三분과위원회 소련측대표「발라시노프」장군은 얼굴에 약간의미소를띄우며 대연한듯이 정원을지나갔다 이와같이 군중이다시 집결하자 경찰은계속하야 시내중요가를 경비하였다 이반탁시위군중은 대한문을출발하야 남대문을거쳐 동四시경 종로네거리에서 해산하였다

時計 貴金屬 寫眞機 西鮮時計店 南大門路三街一九